

# 조선시대 반가 정원공간의 조영사상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지정 9개 지역의 반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hought of Building Noble Family's House Garden of Chosun Dynasty

-Focus One the 9 Noble Family's House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y-

이 동 영\*

Lee, Dong-Young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ak Mok theory of feng-shui ideology which was main thought in Chosun dynasty or some other thoughts and noble families' thought of garden building : planting trees and properties of the noble families garden. The result from the study of noble family's garden molding is as follows.

In the noble family's garden molding, there were considerations of plant ecology known through long experience and the functional aspect of planting tree and esthetic sense of housing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feng-shui thought, Taoist thought and the doctrine of the five natural elements of the positive vs. negative. We can learn Chosun's noble family's garden included playroom as well as symbolic and incantatory meaning.

Also in the thought of noble family's garden molding we can found proper element for modern housing plan such as an ecological peculiarity or functional aspect of dwelling circumstance. And we can also found they didn't show a rejection symptoms against nature but enclosed with straight form which was traditional trait, and each space of it is composed organically. Also we knew they selected a diverse and refined technique with it's decorating the Chosun dynasty playful and meditative space. We found that the key point of the thought of noble family's garden molding were on the basis of Confucianal mood, content amid poverty thought and free technique of it.

키워드: 조선시대, 반가, 정원공간의 조영사상

Keyword: Chosun Dynasty, Noble Family's House, thought of Building Garden

## 1. 서론

### 1.1 연구의 의의

한국의 전통건축은 한국의 자연과 풍토 그리고 풍속을 배경으로 오랜 경험에 기초를 두고 조영되어졌다. 따라서 한국 전통건축의 이해는 눈으로 보이는 형태적인 특성이나 공간적인 특성뿐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하는 것까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해석, 이해하여야 한다.

조선시대 일반인들의 지배사상 이었던 풍수사상과 유교사상을 비롯한 여러 사상(諸思想)들은 자연스럽게 건축행위를 지배하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정원 공간 조영역시 지리적인 자연환경조건은 물론 인문환경과 문화적 측면이 통합된 인심, 생리, 종교와 사상 등을 통합, 고려해야 하고 이어서 시각적, 상징적으로 주변경관과 건축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로서 다양한 공간감과 정서를 느끼게 조영했다. 특히 수목은 정원공간을 조영하는 단위요소로서 다양한 기능

성과 시각적 효용성을 갖고 있다. 집터를 정하고 집을 위치시키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길지에 대한 욕구를 격조 높은 정원공간 조영의도와 수목이 갖고 있는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징과 의미를 고려하여 조화되게 위치하였으며, 이러한 상징과 조영사상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용해시켜 생활공간의 안락함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당시 반가의 정원조영(庭園造營)과 식재(植栽)에 관계되는 풍수사상중 “택목론(宅木論)”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정원조영에 영향을 끼친 신선사상, 유교사상, 도교사상, 음양오행사상 등의 제사상(諸思想)을 분석하여, 그것이 조선시대 반가건축정원공간의 조영과 식재배치에 작용한 점을 찾아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의미를 이해하려는데 있다

\* 정희원, 우송정보대학 건축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공학박사.

### 1.2.1 연구의 대상선정

연구의 범위대상 선정은 논제에 따른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 연관성, 유사성,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연구 분석의 자의성(恣意性)을 지양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진 조선시대 반가 중 비교적 정원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5개 지방 9개 지역의 9채의 반가로 한정하였다. 둘째, 현장답사가 가능한 이남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경기, 영동, 호서, 호남, 영남 등의 5개 지방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조사 대상선정상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협조 하에 관계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을 구하여 상기 5개 지방(경기, 영동, 호서, 호남, 영남)의 9개 지역(서울, 강릉, 논산, 해남, 정읍, 구례, 하회, 달성, 산청) 9개소(서울 연경당, 강릉 선교장, 논산 윤증고택, 해남 윤선도 고택, 정읍 김동수씨 가옥, 구례 운조루, 하회 양진당, 달성 박병규씨 가옥, 산청 이상택씨 가옥)의 조사대상을 선정 하였다.

### 1.2.2 연구의 조사방법

조사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침엽수류의 정상은 연간홍고약 2~3mm 내외인데 고령일수록 성장 폭이 좁으며, 성장이 더딘 주목이 적박지에서 자란 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연간 1~2mm정도 자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고직경이 53cm일 경우는 약 300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sup>1)</sup>

분석방법은 택지주변의 택목 풍수관계와 제사상(諸思想) 연관성을 우선 살피고, 마당의 중심이 되는 곳에 나침반을 놓고 장소와 방위에 따른 수종을 살폈다. 또한 가주의 증언을 청취 기록하여 수목과 정원공간 조영의 상관성을 밝혔다.

자료도면은 문화재대관, 문화재청의 한국의 전통가옥 및 관계문헌, 조사보고서 등 기존의 연구도면들을 기초로 하였으며, 동시에 현장답사를 통하여 2009년 중 약 5개월에 걸쳐 실측, 보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문헌을 고찰 조사 한 후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1.2.3 관련선행연구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동오 교수는 그의 저서<한국의 정원>을 통하여 한국 정원의 개념과 고찰, 정원조양식의 성립조건 등을 말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정원조영에 관한 연구사, 시대배경, 정원각론 및 특징을 시대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둘째, 주남철 교수는 <한국의 정원>을 통하여 삼국시대부터 한국 건축의 본래 모습이 변형되고 전통성이 단절되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서 조영된 정원을 다루고 있다. 셋째, 신상섭 교수는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경관 찾기>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 경관의 의미, 친환경적 공간과 생태학적 양상의 합리성, 전통마을과 문화경관을 통한 중용의 미학, 전통마을의 문화적 역량과 경관적 정체성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풍수지리의 가능성, 전통반가의 공간구성과 정원조영의 실제 등에 관하여 다양한 사진과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넷째, 한국전통조경학회에서 출간한 <동양조경문화사>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정원 문화와 조영의 역사를 통해 삼국의 정원조영 특징과 경향을 말하고, 시대별로 달라진 정원 공간 조영과 조경의 모습을 살피고 있어 동양의 정원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김영철님은 그의 논문 <조선시대 주거건축구성요소의 상관적 특성에 관한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중요한 외부공간 요소인 정원 조영에 관하여 그 환경적 배경과 형태의 구성 및 자연과의 일체감 형성 등을 들어 조선시대 주거건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정원 조영과의 상관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위의 중후하고 활발한 선행연구가 있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상기 문헌들에서 한국정원 조영의 의도를 말하는 정원공간 조영사상 부분의 언급이 희소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미력하나마 본 연구의 시도가 도모되었음을 밝힌다.

## 2. 반가정원공간 조영과 제사상(諸思想)

### 2.1 풍수사상의 택목론(宅木論)과 여러 사상(諸思想)

'택목론'이란 풍수에서 파생된 이론으로 집안 정원의 조영과 정원에 식재되는 나무의 장소와 수종, 방위에 따른 길흉화복을 논하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정원조영과 수목에 어떤 사상내지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은 문헌상 이미 태고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삼국유사> '고조선조' 에는 "신단수"가 등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당산의 신목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원조영과 수목을 신성시한 사유체계는 풍수사상을 중심으로 그 외에 유교사상에 의한 위계·영역성, 도교적 자연관인 안빈낙도의 은둔사상, 태평성대 회구사상, 도법자연(道法自然)과 은일사상을 바탕으로 별당, 별서등의 정원건물이 조영되었다. 그리고 음양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천지인(天地人)의 우주적 이론관계를 말하는 삼재(三才)사상은 그 상징인 주종철(主從添)과 원방각(圓方覺)의 형태로 조선시대 반가 정원 공간조영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고 이들을 통해 우리조상들은 내면세계의 바람을 회구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정원의 조영과 식물을 도입할 때는 장소와 방위 등을 고려하여 마땅히 권장하는 의(宜)와, 금기하여 꺼리는 기(忌)로 길흉을 연계시켰고 풍수지리(택목론), 음양오행, 유가사상, 신선사상, 도교사상, 민간신앙 등의 사상과

1) 현신규, 김갑덕, 측수학, 향문사, 1975, p.37

그리고 생태적 특성과 입지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표 1. 식재장소(植栽場所)에 따른 의기(宜忌)

장소	의기	조경식물
문 앞	의(宜)	회화나무, 문정에 두 그루 의 대추나무, 버드나무
	기(忌)	고수(枯樹) 한 그루, 모양이 같은 나무 두 그루, 상록수, 수양버들, 청초(靑草), 모과나무, 버드나무
중정(中庭)	의(宜)	화초류, 라일락, 장미, 사철, 동백, 파초
	기(忌)	거수(巨樹), 많은 수목
정전(庭前)	의(宜)	석류나무, 서향화(瑞香花), 천리향(千里香)
	기(忌)	오동나무, 파초
울타리 옆	의(宜)	동쪽 울타리 옆에 홍벽도, 국화
	기(忌)	참죽나무, 초림(楸林, 산초나무), 벽려(薛荔, 줄절사나무)
우물 옆	의(宜)	구기자나무, 앵두나무, 향나무
	기(忌)	복숭아나무, 기수, 꽃나무, 오동나무
집 주위	의(宜)	울창한 소나무, 울창한 대나무
	기(忌)	단풍나무, 백양(白楊, 사시나무), 가죽나무
택내(宅內)	의(宜)	감·대추·무화과·석류·앵두나무는 집안 어디에 식재하던吉(특히 업나무, 지피나무吉), 동정의 벽오동, 사철·대추·감·대나무, 향나무
	기(忌)	무궁화, 뽕나무, 상록(商陸, 자리공), 거수, 상록수,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표 2. 방위(方位)에 따른 식물의 배식(培植) 및 의기(宜氣)

장소	의기	조경식물
동	의(宜)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홍벽도, 자두나무, 회화나무, 국화, 땃, 매화, 소나무
	기(忌)	살구나무,
남동	의(宜)	울나무, 버드나무, 매화, 대추, 자양화, 오동나무, 뽕나무
	기(忌)	살구나무
남	의(宜)	복숭아나무, 매화, 대추나무, 소, 오리, 참, 싸리, 굴피, 대나무, 느릅, 진달래, 철쭉, 아카시아, 참나무, 향, 가문비나무
	기(忌)	자두나무
남서	기(忌)	거수(巨樹)
서	의(宜)	산뽕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치자나무, 무화과, 석류, 은행, 백일, 오동나무
	기(忌)	버드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거수, 활여수, 칠엽수, 소나무, 느티나무
북	의(宜)	느릅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살구나무, 능금나무, 소나무, 은행, 느티나무, 해송, 팽, 가시, 참나무, 밤, 호두나무, 회화나무(거수도무방)
	기(忌)	자두나무, 동백, 영산홍, 왜철쭉, 치자나무, 석류나무, 월계화, 포플러, 미류, 뽕, 아카시아, 대금송, 가문비, 사철나무
북동	의(宜)	대나무, 관목, 매화나무
	기(忌)	거수
북서	의(宜)	정원용화목, 소나무, 측백, 감, 밤, 은행, 느릅, 석류, 거수, 회화나무 대나무, 오동나무,
	기(忌)	거수

이러한 이론들이 정원조영원리의 기준이 되고 관습이 되었으며, 우리의 환경배치계획 이론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배식에 관한 내용을 주로 <산림경제> 중 북거편(卜居篇), <임원십육지(林園十

志)>2) 중 예원지(藝畹志), 이운지(怡雲志), 상택지편(相宅志篇)을, 강희안의 <양화소록> 중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 박인태의 풍수지리양택요결(風水地理陽宅要訣)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출하였으며, <표 1>, <표 2>와 같다.

### 3. 사례조사 및 분석

#### 3.1 영동지방 - 강릉 선교장(船橋莊)

선교장(船橋莊)은 풍수상으로 노서하전형국(老鼠下田形局)의 길지로 예전의 배다리(船橋)에 위치한 대규모의 주택이다. 영동지방에는 많은 주거문화재가 있고, 각 주택마다 특징을 갖고 있지만 선교장처럼 독특한 구성에 집주위 환경과 정원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할 것이다. 대문이 달린 행랑채와 안채 사랑채, 동별당, 정자 등이 남아 있는 당대 대지주의 호화주택이다.<sup>3)</sup>

선교장의 건물은 우리나라 상류주택의 한 전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상류주택유형에는 집약된 건물배치와 분산 개방된 건물 배치의 2가지가 있는데, 선교장은 그 후자에 속하며 자유스럽게 개방된 너그러움과 인간생활의 활달함이 가득 차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sup>4)</sup>

열화당 뒤쪽의 우람한 계화나무와 활래정 뒷산의 거대한 떡갈나무의 모습은 선교장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노송들과 어울려 고아한 미의 극치를 이룬다. 들어열개의 분합문으로 구성된 활래정은 사철로 변하는 우주의 변화와 생동감을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반가는 가장 기본집단인 가정으로부터 풍류의 멋을 찾았는데 선교장은 그러한 표본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sup>5)</sup>

활래정(活奈亭)의 지붕은 팔작 지붕이며 정자하주는 사각기둥으로 하고 그 위에 정자는 원기둥으로 세워 성리학의 삼재(三才)인 천, 지, 인의 기호와 적용된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의미가 담겨진 성리학적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활래정(活奈亭) 앞 연지에 연꽃봉우리가 터지면 으레 누마루에 술자리가 벌어지고 그때는 당연히 시회(詩會)나 서회(書會)나 화회(畫會)가 곁들이게 되어 이 장원(莊園)은 은둔은일, 음풍농월의 낭만적 풍류 공간으로 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교장은 사대부반가로서의 은둔풍류의 생활 그 자체이었고, 한편 안빈낙도(安貧樂道)사상에 철저했던 그들은 우애의 생활과 시문을 즐기는 선비의 생활을 이상으로 삼고 그 표방적인 상징건물로서 열화당

2) 임원십육지 또는 임원경제 십육지로 전함, 순조때 실학자 풍석 서유구(楓石 徐有渠)가 '산림경제'를 토대로 저술한 농업용 지도서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  
3) 김봉열, 한국건축, 기문당, 1999, p.78  
4) 정인국, 한국건축양식화, 일지사, 1999, p.401  
5) 문화재청 한국전통가옥, 대명기획2007, p.149

(悅話堂)을 건립 하였던 것 이.<sup>6)</sup>

예부터 꾸며온 방지의 한가운데 섬을 앉히는 기법인 방지축도(方池築島)는 조선중엽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섬을 원으로 만드는 방지원도형(方池圓島型)과 섬을 네모형으로 만드는 방지방도형(方池方島型)이 있다. 방지원도형은 음양오행설과 천원지방(天圓地方)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방지는 음으로 땅을, 둥근섬은 양으로서 하늘을 상징한다. 이들의 조화는 바로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음양의 결합에 의해 만물이 태어나듯이 자손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활래정의 방지방도형은 아주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이 형태는 지신을 모신 지단(地壇)의 원형인 방택(方澤)에서 온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방택은 네모난 연못에 네모난 제단 방지방도(方池方島)를 축조한 것이다. 지신은 생산의 기반인 땅을 관장하는 신이므로 결국은 이 형태도 자손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같은 음양의 조화 안에 활래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sup>7)</sup> 결국 방지원도형은 음양설과 천원지방설이 합하여져 생긴 것이다. 현재는 소나무 3그루가 식수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활래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앞뜰과 열화당 뒤편의 수많은 노송들이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선교장의 정원에는 풍수사상의 택목론과 음풍농월의 풍류사상, 봉래산의 신선사상, 방지방도의 음양오행사상과 천원지방의 성리학사상, 은일은둔의 안빈낙도사상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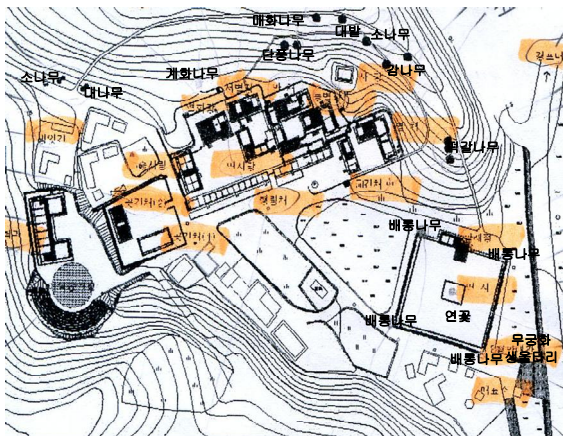


그림 1. 강릉 선교장

선교장은 열화당의 뒷정원, 안채의 뒷산, 그리고 활래정의 위까지 연결된 동산 자체가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하나의 커다란 정원이다. 주위의 자연환경 하나하나를 살린 이곳에서는 하늘의 뜻이 곧 인간의 마음이라는 태도를 발견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 혼용체가 된다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조화미를 찾던 조선

시대 사대부의 성리학에 바탕한 정원조영 으로서 좋은 규범이 된다. 이곳이야말로 한국정서요, 한국특유의 공간이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 3.2 경기지방 - 연경당(演慶堂)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연경당은 순조 28년 세자의 청으로 당시 사대부의 집을 본떠 세운 궁집으로 한국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한옥의 고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전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건물이다.

99칸인 연경당은 주 건물인 연경당을 중심으로 주변을 건물과 울담으로 둘러싼 회자형의 배치이다.

연경당의 건물구성을 보면 사랑채인 연경당은 개방적인데 비해 내당은 폐쇄적이다. 또한 특별히 특이한 점은 건축 세부의 도리형태도 사랑채는 민도리이고 내당은 굴도리인점과 안채, 사랑채 모두 네모기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연경당은 유교국가의 효시적 건물로서 남녀유별과 가옥규제에 철저히 따라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는 각각 음양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음양의 조화를 시도한 것이다. 연경당이 다른 반가주택과 특별히 다른 점은 사당과 별당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류주택을 모방하면서도 궁궐 안에 건축한다는 특수한 입지적 조건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sup>9)</sup>

연경당의 정원 수목관계를 분석해 보면, 장락문 동쪽에 방지가 있는데 이 못가에는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잘 자라므로 물이 고인데 심으면 유리하다고 하며, 동쪽에 심으면 가축이 흥왕한다는 택목론의 배식수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장락문 앞에는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이 또한 집 앞에 심으면 좋다는 의기사상과 일치한다.

연경당 앞에는 단풍나무, 농수정 입구에는 열너수와 앵두나무를 심었다. 이곳은 경사진 지형에 무사석의 작은 돌로 화계를 꾸미고 그 사이에 돌계단을 설치하여 아름답게 조원하였다.

또한 선향재 뒤뜰 화계에는 철쭉류를 군식하였고, 사랑채 뒤뜰에는 느티나무 1 株를 심었다. 선향재 측면 벽체는 궁궐안의 제택(第宅)으로서 품격이 돋보이나 중국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있다.<sup>11)</sup>

이러한 연경당의 정원공간조영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외부공간의 변화와 택목론의 풍수사상과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남녀유별의 철저한 유교사상과 선향재 등에서 모화사상(慕華思想)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8) 이기서, 전계서, p.83

9)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2003, p.117

10) 홍만선의 산림경제(참고문헌) '복거편' pp.39-43을 참조

11) 홍대영, 한국의 건축문화재, 기문당, 2001, p.180

6) 이기서, 강릉선교장. 열화당, 1990, p.54

7) 박경립, 한국의 건축문화재, 기문당, 1999, pp.234-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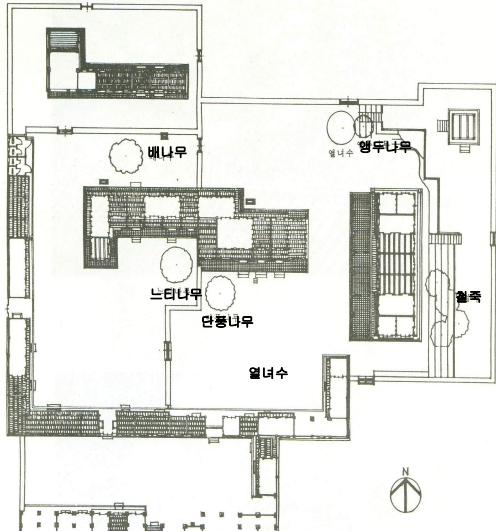


그림 2. 연경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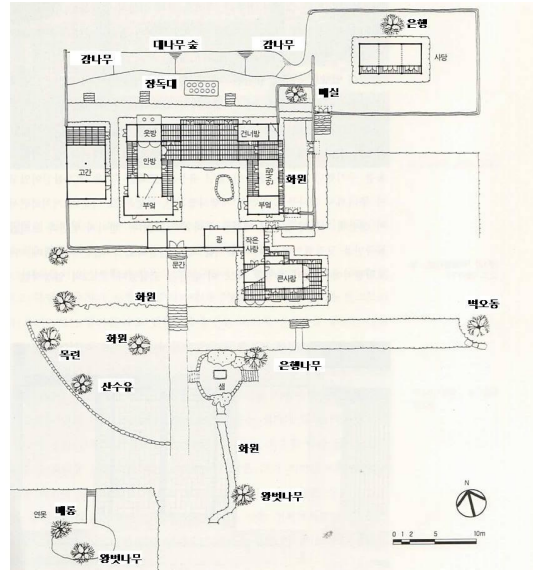


그림 3. 논산 윤증 고택 평면도

### 3.3 호서지방 - 논산 윤증고택(尹拯故宅)

풍수적으로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sup>12)</sup>의 명택으로 알려진 고택은 송림이 우거진 청룡 맥의 야산을 끼고 안길을 따라 올라가 노성산을 배경으로 남향하여 높은 기단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살림집은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꽃간채, 안행랑채, 사당 등으로 구성된다.

윤증 고택의 특징은 안채와 사랑채를 여러 측면에서 대비적으로 구성한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택 구성방식은 조선 중기에 성리학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개방적이고, 외향적이며, 원심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되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 영역과, 폐쇄적이고 내향적이며 구심적이고 수평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공간인 안채의 영역이 생활공간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네모반듯한 마당을 둔 안채는 치밀한 구조로 건축되어 있고, 후원에는 자연석을 가지런히 쌓아 화계(花階)<sup>13)</sup>를 두었는데, 정갈한 장독대를 중심으로 죽림과 송림이 어우러져 미적 쾌감을 유발한다.

안채와 사랑채에서 사당에 이르는 과정적 공간에는 2개의 독립된 셋마당을 두었는데 가지런히 축석된 화오(化塢)<sup>14)</sup>와 화계가 조성되었다. 이곳 뜰에는 앵두나무, 석류나무, 매화나무, 모란 등을 도입하여 그림틀 효과는 물론 상징적 의경미를 감상할 수 있다.

높은 기단 위에 사랑채는 외부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절

묘한 경관도구가 되는데, 그 주변에 30-50cm 크기의 경석을 세워 축경형의 석가산(石假山)을 꾸며 신선경의 세계를 함축적으로 축경하는 등 훌륭하고 독특한 정원 조영기법을 보여준다.

경계물 없이 넓게 마련된 바깥마당에는 노성산에서 발원하는 계류수를 끌어들이어 음양설과 천원지방설을 바탕으로 하는 넓은 방지원도형 연못을 가꾸어 가문번영을 기원하였고 음향오행설과 신선사상 및 천원지방설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펼쳐지는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연못에서 문간에 이르는 바깥마당에는 왕벚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향나무, 철죽 등이 철따라 운치를 더해주고, 우물가에 놓인 괴석과 무산<sup>15)</sup> 12봉을 축경한 용두가산, 돌의자 그리고 석계와 화계 등이 어우러진 살림집 정원은 자연과 조화된 풍경으로 다가온다.<sup>16)</sup> 뒤의 주산에 의지하고 지형을 잘 살피서 아늑한 장소에 배치된 윤증 고택의 정원 공간 조영과 화목의 식재(植栽) 조성에는 택목론을 중심으로 한 풍수사상과 유교의 성리학사상, 도교적인 신선사상 등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호남지방

#### 3.3.1 해남 윤선도고택(尹善道故宅)

사적167호로 지정된 이 고택은 ‘녹우단’이라 불리어지며, 호남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6,600여㎡의 대지에 지어진 약 60칸 규모의 대표적 반가(班家)이며 그의 문학예술뿐 만아니라 조원, 조경, 원예, 건축에 이르기까지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음을 느끼게할 수 있는 공간이다.

12)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 풍수지리에서 옥같이 깨끗한 여자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명당의 형국이라는 뜻으로, 산의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부르는 이름의 하나임.  
 13) 화계(花階) : 화초를 심으려고 뜰 한쪽에 흙을 조금 높이 쌓아서 계단처럼 모은 곳, 계단모양의 화단  
 14) 화오(化塢) : 화초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언덕

15) 무산(巫山) :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명산(名山) 산위에는 12봉(十二峰)이 있어 신선이 산다하며 고래로 한문(漢文)의 시가(詩歌)에 많이 나옴.  
 16) 한국전통조경학회, 동양조경문화가, 도서출판 대가, 2009, p.234

오랜 역사를 가진 집답게 녹우단에는 많은 건축적 구성 요소와 정원조영의 원리들이 매우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은행잎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풍경”이라는 뜻을 가진 녹우단은 세 개의 사당과 재각 등 다수의 유교시설이 있는데 아무리 증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별묘(別廟)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예이다..

건물은 사랑채와 안채를 중심으로 여러 동의 행랑채와 1 동의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건물의 기능에 따라 8개의 독립적인 외부공간으로 분절되어 있다.

덕읍산의 혈이 뭉친 명당터에 위치한 ‘녹우단’은 대나무 숲으로 에워싸여 있고 난대수종인 동백나무와 비자나무가 수해를 이루고 있다. 마을 어귀에는 낮은 동산이 꾸며져 있고 방지방도(方池方島)형의 못이 있다. 고산(孤山)의 14대 종손인 가주 윤형식씨에 의하면 이것은 풍수설에서 말하는 주작(朱雀)의 오지(汚池)에 해당하며, 주변에 해송을 심어 마을의 차폐 및 방풍림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녹우단’에 들어서기 전 입구 쪽에 방형 행단이 있는데, 이곳에는 둘레가 4.8m, 높이 20여m, 수령이 500여년에 이르는 은행나무가 서 있다. 옛 부터 은행나무는 집안에 심지 않는다는 속설과 일치하며, 공자묘에 얽힌 고사로 문묘 등에 자주 심어졌던 당시 유럽들의 심성에 기인한 듯하다.<sup>17)</sup>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의 바깥마당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는 방지가 직선 형태로 꾸며져 있으며, 주위에는 향나무, 비자나무, 회양목 등이 심어져 있다.

남쪽 행랑마당에는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감나무 등의 과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회화나무를 이 집안에서는 복(福)나무라고 부른다고 한다.

안마당의 입구 쪽인 사랑채와 안채의 접점부에 낮은 흙산을 꾸며 이곳에 후박나무와 화초 등을 심어 안채의 부엌과 우물의 차폐기능을 하고 있다.

안채 뒤쪽의 후원과 그 동쪽에 있는 사당 주위에는 감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등이 대나무와 어울려 심어져 있다. ‘녹우단’에서의 정원공간구성은 주로 수목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배치임을 알 수가 있다.

가주 윤형식씨에 의하면 ‘녹우단’은 보길도의 세연정과 같이 택목론 등의 여러 정원조영사상에는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지는 못했으나 성리학적 조상숭배사상과 향리에 은거하는 풍류적 자연관과 은일은문의 도가적 사상에 의거하여, 건물의 기능과 형편에 따라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정원공간의 조영과 식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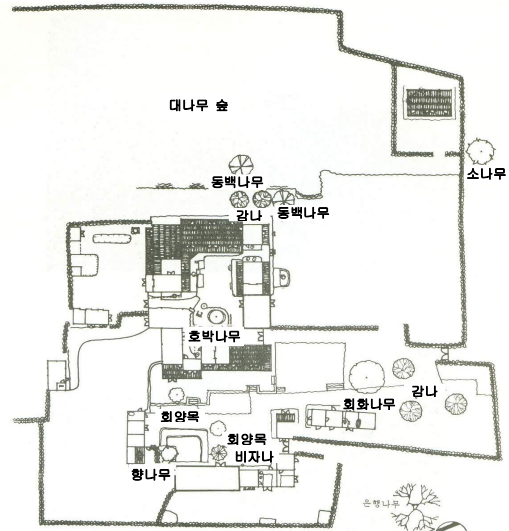


그림 4. 윤선도고택 평면도

### 3.3.2 정읍 김동수(金東洙)씨 가옥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공동마을에 있는 김동수씨 가옥은 그의 6대조이며 입향조(入鄕祖)인 김명관이 나이 17세에 건축하여 10년 만에 완공하였다고 하며 건축 년대는 1784년경이 된다.

건물은 모두 10동으로 주영역인 본체는 안채와 사랑채 바깥 구획되며 전체적으로 안채와 바깥채와 행랑채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부속채등이 사당과 호지집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 집의 공간구성은 탁월한 것이어서 사대부 집의 공간구성과 민가건축의 소박한 구조 형식이 결합된 호남의 부유한 반가로써 색다른 유형의 살림집으로 그 가치가 있다하겠다.

이 가옥은 평사낙안(平沙落雁)이라는 지네와 관계있는 명당으로 전형적인 풍수지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풍수지리에서 지네형 터를 길지로 여기는 것은 지네의 다리처럼 자손과 재화가 번창할 수 있으리라는 기복적 믿음 때문이다.

수목에 의한 정원의 공간조영을 분석해 보면, 대문 밖 연못에 이르는 넓은 터는 현재 채전을 일구고 있으며 주위엔 탕자나무 울타리가 있고 연못 주위에 단풍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이 있으며 연못을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지네산으로부터 반달형을 이루면서 이 가옥을 감싸고 있다.<sup>18)</sup>

바깥사랑채의 북쪽에는 수령 200년가량의 전나무가 서 있고 주위에는 사랑채에 화계를 조성하여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섰고, 목련, 장미, 산수유, 동백나무, 감나무 등이 심어져있다 이 정원은 절따라 아름다운 꽃과 도랑에 흐르는 깨끗한 물이 조화되어 신선사상에 따른 선경을 이루는 보기 드문 훌륭한 정원조영사례이다.

바깥마당에는 남북17m,동서32m,깊이2m규모의 긴 지렁

17) 중국 송나라의 진종(1022년)때에 공자가 제자를 가르쳤던 강당의 옛터(산동성 곡부현 성묘 내)에 행단(杏壇)이란 비가 서고 杏林이 조성 되었으며, 행단(杏壇)이란 선비가 공부하는 곳이란 별칭이 되었다.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p.3679

18) 김광연, 정읍 김씨집, 열화당, 1980, pp.48-49 참조.

이 몸통형태의 연못이 조성 되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단풍나무와 느티나무로 수림대를 이루었으며 이 숲은 길게 늘어진 수십 그루의 느티나무 비보숲과 연결되어 넓은 들판과 살림집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가옥에 식재된 수목의 대부분은 활엽수로서 감나무를 심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외부공간의 변화와 경제적 인 이(利)를 함께 취한 듯 하며, 집의 지붕합각에 지내철<sup>19)</sup>, 마당 뜰에 지렁이 모양의 긴수로 등 풍수적 비보요소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집터내의 풍수 택목론 식재(植栽)의도에 의해 심어진 느티나무 등의 예로보아 건물과 정원 조영시 택목론의 준용은 물론 사대부의 반가와 민간건축의 형식이 혼연히 결합된 유교적 상생사상 등 여러 사상의 깊은 배려가 있었던 듯하다.



그림 5. 김동수氏가옥평면도

### 3.3.3 구례 운조루(求禮 雲鳥樓)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는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건축 당시99칸 규모의 집으로 지어진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조선후기의 상류주택이다. '금환낙지'<sup>20)</sup>라 일컫는 명당지에 자리 잡은 운조루의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집 앞의 연못에서 이지방의 조원, 조경적인 선호를 읽어볼 수 있으며 운조루의 대표적인 정원은 대문밖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들수 있다. 대문밖 앞마당에는 장방형 연못이 있는데 연지 중앙의 섬에는 소나무 1주가 심어져 있고 주위에는 대나무, 배롱나무, 기목나무,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다. 독특한 생김새와

운치가 있는 수목은 한그루만 심는 대식(對式)방식 식재의경우가 많은데 운조루의 뜰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중앙의 섬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방장선산(方丈仙山)을 모방한 것이나 연못주위에 버드나무가 식재된 것에서 신선사상과 함께 풍수적 비보(裨補)원리 의도를 읽을 수 있고, 이는 택목론에 의한 배식수법과 일치하며 대나무는 방풍의 역할을 하여 권장 하는 기능적인 배식이다. 대문 우측에는 감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를 중심으로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뜰 앞에는 회양목과 석류나무가, 서쪽 담장가에는 동백나무, 감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등이 심어져 있으며 정심수(庭心樹)로 식재된 소나무와 위성류(渭城柳)<sup>21)</sup>는 차폐식재로 택목론이 준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주 유중숙씨에 의하면 행랑채 앞에 식재된 위성류와 소나무는 건물을 지을 당시에 식재한 것으로, 위성류는 중국에서 가져다 심었으며 소나무는 수년전 고사했다고 한다. 사랑채 뒤에도 산수유를 심은 화단이 있으며, 안주인 이씨에 의하면 목단, 자목련, 사경화 등의 화목류가 있었다고 한다.

운조루 정원공간에서의 조영사상 관계를 분석해보면, 선비들이 학문을 즐기고 자연을 완상하며 휴양을 하는 문화공간인 동시에, 유가적사상의 지표로 삼은 조영의도를 알 수 있겠고 이어서 풍수 택목론과 은일운둔 하는 신선의 도가사상이 존중되어 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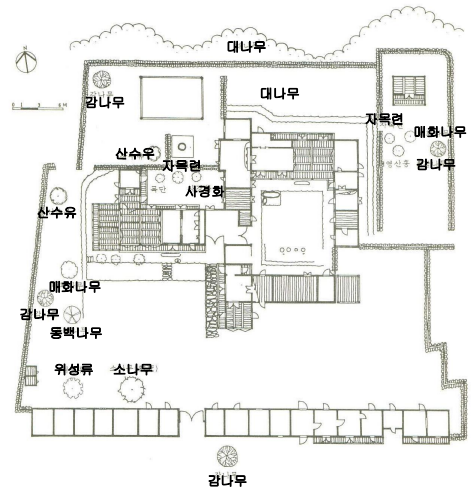


그림 6. 운조루 평면도

## 3.4 경남지방

### 3.4.1 하회 양진당(養眞堂)

하회마을의 북촌(北村)을 대표하는 주택이며, 겸암 유운옹이 기거한 곳이다.

건물은 1600년대의 건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남향으

19) 지내철 : 건물박공의 두 쪽을 마주 대하는 이음매에 걸쳐 박는 지내모양으로 만든 첫조각.

20) 금환낙지(金環落地) : 이증환은 그의 저서 擇里志를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구례, 진주, 성주를 지목하고 있는데 특히 구례를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천상의 玉女가 형제봉에서 금가락지를 떨어뜨린 금환낙지의 형국이어서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명당으로서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운조루(雲鳥樓)이다.

21) 위성류(渭城柳) : 갈잎 작은키나무 키는 약 7m, 가지는 적갈색. 보통 산에 나는데 정원수로 심으며 가지와 잎은 약재로도 쓰임.

로 자리 잡은 口자형의 안채와 그 북쪽에 위치한 一자형의 사랑채, 그리고 동쪽으로 역시 一자형의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 건물은 전부 연결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마당에서 안마당으로 통하는 중문엔 내외담을 설치하여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상징적으로 구획한다. 위치 또한 정남향으로 지어져있고 있으며 규모도 대중택다운 현실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가람집(호지집:하인들의 집)에 둘러싸여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수목관계를 분석해 보면, 사당마당 앞에는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당시 유교 유림들의 자연주의적 심성을 엿볼 수 있다. 사당마당 앞에는 조상 숭배사상을 뜻하는 향나무가 2주 발견되는데, 이 역시 제단이나 제사와 관련된 곳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안마당에는 정심수(庭心樹)를 심으면 집안이 빈곤(貧困)해진다하여 대신 마당에 향나무, 은행나무와 철쭉, 연산홍들의 화목을 심어 칠따라 운치를 더해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케 하였다. 집 주위로는 방위에 관계없는 감나무를 식재(植栽)하여 과실(果實)의 이(利)를 취하였다.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따라 동쪽에 버드나무, 남쪽에 매화나무, 서쪽에 치자나무 북쪽에 살구나무를 심어 풍수적 비보의도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기법의 실례를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양진당(養眞堂)의 정원공간조영관계를 분석한 결과 많은 수종이 식재(植栽)되지는 않았으나 극히 절제되어 식재(植栽)된 수목들에는 유림들의 자연주의적 사상과 조상숭배사상, 태목론에 의거한 풍수사상등이 각각 정원공간조영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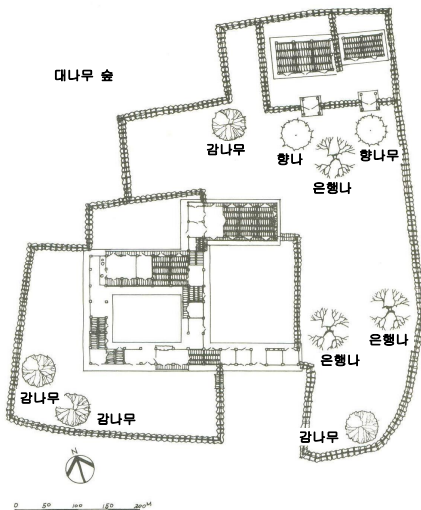


그림 7. 양진당 평면도

### 3.4.2 달성 박병규씨 가옥

팔공산을 조산으로 청룡 맥과 백호 맥이 겹겹으로 둘러싸이고 합수된 물이 청룡 맥에서 감추어지는 명국터에 고택은 동남향을 취하고 있으며 외부공간은 사랑마당, 중문마당, 셋마당, 안마당, 별당 연못, 후원으로 대별된다.

이 가옥은 살림채 영역과 별당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살림채 영역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꽃간채로 구성되고 별당 영역은 별당채와 장방형의 방지로 이루어진다.

앞에 넓은 논이 있는 대문채를 들어서면 전면에 오래된 석류나무가 서있는 사랑채가 있다. 석류나무를 뜰 앞에 심으면 푹푹한 자손을 두고 자식이 번성해져 길하다는 태목론의 이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sup>23)</sup>

사랑 마당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낮은 토담이 보이고 토담위로 별당채의 지붕이 보이며 토담에 설치한 문 옆에 담장가에는 화오(花塢)를 두어 살구나무, 황매화, 사철나무, 벽오동 등을 가꾸었다. 안채 후원에는 높다란 화계(花階)를 일구었는데 송림을 배경으로 대나무와 난초를 가꾸었다.

별당마당에 들어서면 마당 가운데 상당히 큰 방형 연지가 있고 연지 중앙에는 인공적으로 봉래산을 조산하고 산 주위로 연을 가득히 심어 신선사상의 면모를 은은히 풍기고 있는데, 꽃 가운데 군자라고 한 애연설(愛蓮說)도 반영된 듯하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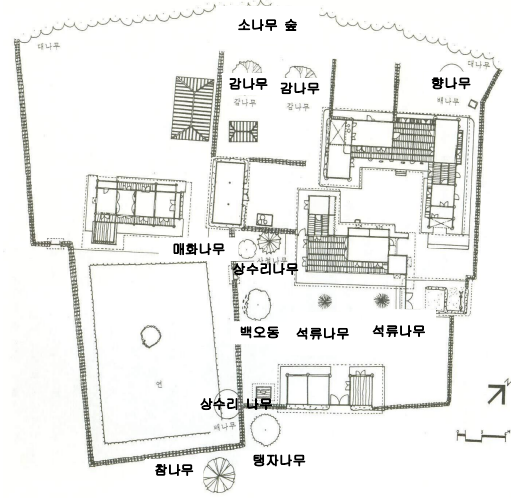


그림 8. 박병규씨 가옥 평면도

연지 주위에는 매화나무, 배나무, 배롱나무, 자귀나무, 자두나무, 산수유, 복숭아나무, 감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

22) 정재훈의 한국의 옛 조경(참고문헌) p.19를 참조하면 우리나라는 제단이나 제사와 관련된 곳에는 향나무를 심었다 함.

23) 홍만선의 산림경제(참고문헌)'복거편' pp.39-43 참조.  
24)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돈이(염계,1017~1073)가 연(蓮)이 더러운 시궁창속에서 자라면서도, 즐기는 끈고 있는 오염되지 아니하며 아름답게 피고 꽃은 향기를 멀리 보내고 있으니, 인간이 인격 도야의 본보기로 삼을만한 군자(君子)의 꽃이라 함.



되어 있으며 노거수인 상수리나무는 경관지표의 역할과 함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워 정원 공간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후정 쪽에는 대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뒷동산과 연결된다. 이것은 대나무와 소나무가 집주위에 무성하면 생기가 왕성해진다하여 적극 권장하던 택목론의 수목 의기(宜忌)사상과 일치한다.<sup>25)</sup>

이러한 박병규씨 가옥의 정원공간 조영과 수목의 식재에는 성리학적 선비정신과 신선사상을 비롯한 택목론의 이론이 깊숙이 내재되어 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4.3 산청 이상택氏 가옥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위치한 이 가옥은 남사리에 정착한 성주이씨의 종가로 약200여 년 전 조선시대 중기에 속하는 건축물이다.

안채의 좌향이 동남간에 있고 이것에 나란히 하여 정면에 사랑채를 두었다. 우측 행랑채는 직각이 되게 좌측의 고간은 약간 경사지게 배치하였다. 중문은 사랑채 좌측에 붙여 마구간, 행랑방을 두었으며, 사당은 뒤쪽에 갈 것이 대지모양에 의하여 고간옆 동남간에 위치되어 있다.

수목에 의한 정원의 공간구성을 분석해보면, 대문 앞 진입로에 회화나무 2주가 심어져 있고 대문에 들어서면 우편에 1주가 더 심어져 있다. 이것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집 앞에 심으면 길하다라는 내용에 비친 삼점식(三點式)식재 사상과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어 삼공(三公)을 원하는 뜻으로 삼았다는 고사에 따른 택목론 수목 의기사상과 일치한다.<sup>26)</sup>

사랑채 대청의 우편 즉 서쪽에 매화나무가 1주 서있으며, 사랑채 앞 가까운 중앙에 소나무가 1주 서 있어 이는 선비정신으로서의 수심양성(修心養性)의 지표로 삼은 듯하다.

안마당은 빈 공간 상태이고, 후정은 감나무가 담장을 따라 9주가 심겨져 있으며, 이외에는 빈 공간으로 채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이(利)를 고려한 듯하다.

사당 마당에는 집수령과 동일한 향나무가 2주 심어져 있어 이 집이 종가택임을 알 수 있게 하며, 산수유, 감나무가 각각 1 주씩 심어져 있다.

가주 이씨(1990년 6월 작고)의 미망인 하씨에 의하면, 18대동안 유족하게 가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집안에 여러 가지 풍수적 속설들이 연면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풍수적 택목론의 배식수법과 음양원리에 바탕한 삼재사상(三才思想)과 선비들의 유학사상, 조상숭배사상 등이 충실히 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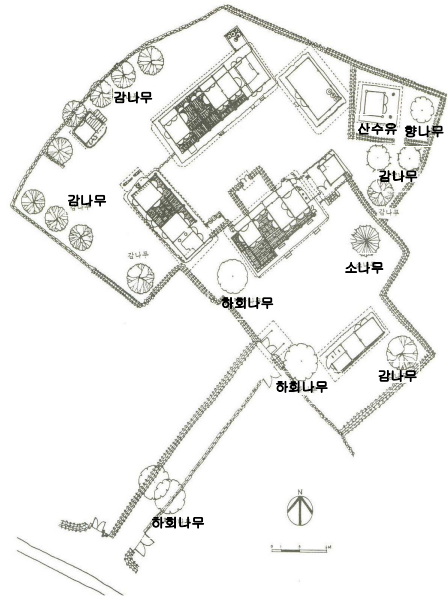


그림 9. 이상택氏 가옥 평면도

### 3.5 종합분석

이상에서 사례조사 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시대 반가정원공간조영은 택목론에 의한 풍수 사상과 신선사상, 유교사상, 도교사상, 음양오행사상 및 샤머니즘의 주술적 의미 등을 정신적 바탕으로 하여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분석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사례분석에 따른 조선시대 반가정원 조영사상의 분석표

지역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연지-연꽃, 무궁화, 연지-소나무, 배롱나무, 후원-떡갈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선교장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북쪽-소나무, 단풍나무, 계화나무, 서남쪽-떡갈나무, 배롱나무, 무궁화, 연꽃, 북서-매화나무, 대나무, 소나무
	관련사상	풍수택목사상, 봉래선산 신선사상, 풍류와 은일은둔의 도가사상, 물아일체의 성리학적사상, 안빈낙도사상
	연경당	연경당 장락문 동쪽 방지주변-버드나무, 장락문 앞-느티나무(회화나무), 선향재 뒤뜰-철쭉등 화목. 연경당 정전-단풍나무
윤증고택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북-소나무, 동남-느티나무, 북서-연산홍, 앵두, 열녀수, 서남-철쭉 화목, 남-단풍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풍수택목사상, 모화사상, 유교사상
	관련사상	후원화계-화목, 집주위-대나무, 소나무, 중정,전정-앵두, 매화, 석류, 모란, 연지-연꽃
	북-대나무, 북서-매실, 은행, 화목, 남동-목련, 산수유, 철쭉, 서-벽오동, 남-왕벚꽃	봉래선산의 신선사상, 유가사상(주택공간구성의 결정적 영향), 풍수사상

25) 홍만선의 산림경제(참고문헌)'북거편'p.39-43 참조.  
 26) 중국 주나라 때에 궁중에 괴목(槐木) 세 그루를 심어 그 밑에서三公(세정승)이 정사(政事)를 보았으며, 또 고관의 기념식수로 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자손 가운데서三公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심어져 왔다.

윤선도 고택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집주위-대나무, 소나무, 문앞-은행나무, 녹우단-대나무, 소나무, 난대수종·동백, 비자나무, 정전중전-화초, 사당후원-대나무, 소나무, 행랑채 마당-회화나무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북-대나무, 동남-향나무, 회양목, 북서-동백, 소나무, 남서-은행, 비자, 회화나무, 회향목
	관련사상	유가의 조상숭배사상, 신선사상, 은일은거하는 풍류적 도가사상
김동수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연지-연꽃, 대문앞-은행, 회화나무, 사당-향나무, 집주위-대나무, 감나무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북서 사랑채-대나무숲, 목련, 장미, 산수유, 동백나무, 북-향나무, 동서남북-감나무, 벚나무
	관련사상	비보적 풍수사상, 상생적 유교사상, 봉래선산 신선사상
윤조루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정전-석류나무, 중정-철쭉, 목단, 자목련, 연지-연꽃, 버드나무, 집주위-대나무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북-대나무, 서-동백, 매화
	관련사상	택목론의 풍수사상, 선비정신의 유교사상, 은일은둔의 신선도가사상
양진당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정전-석류나무, 집주위-대나무, 소나무, 연지-연꽃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북동-대나무, 북-대나무, 감나무, 북서-향나무, 은행나무, 화목, 남서-은행, 동-버드나무, 남-매화, 마당-향, 은행, 북-살구, 서-치자
	관련사상	천원지방의 성리학적 사상, 기능주의 사상, 유생적 풍취의 유교사상, 한거하는 유림의 은둔은일사상, 택목론의 풍수사상
박병규 가옥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정전-석류나무, 울타리옆-살구나무, 황매화, 사철나무, 벽오동, 후원-대나무, 연지-연꽃, 매화, 배, 배롱, 자귀, 복숭아, 산수유, 자두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동남-사철, 석류, 벽오동, 살구, 황매화, 북동-연지연꽃, 매화, 배, 배롱나무, 자귀, 자두, 산수유, 복숭아, 북-대나무, 소나무
	관련사상	택목론의 풍수사상, 봉래산의 신선사상, 은일은거·도가사상
이상택 가옥	식재장소에 따른 의기(宜忌)	문앞, 정전-회화나무, 사당-향나무, 울타리 옆-감나무, 집주위 소나무
	방위에 따른 식재 및 의기(宜忌)	서-매화나무, 남-벽오동, 탕자나무, 참나무, 사철나무, 석류나무
	관련사상	대문부분의 삼점식재사상, 선비정신의 유교사상, 조상숭배사상

#### 4.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조영된 반가정원의 조영사상 중 조선시대의 지배사상이었던 풍수사상중의 택목론과 기타 여러사상(諸思想)들이 정원조영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로 본 연구대상 반가에서 나타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가의 정원조영은 자연의 제약에 민감하고, 또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정원의 조영사상에 택목론과 여러사상(諸思想)들이 동일하게는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경로에서 몇가지 환경조건을 변용하고 수용하기 위하여 지역적, 개인적으로 그 기준을 변형하고 기본적 사항들만을 적용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조선시대 반가의 정원조영사상에는 풍수사상이나 음양설 외에 오랜경험을 통해 알려진 식물생태의 과학적인 배려와 화계등을 이용하여 좁은 후원 공간을 효율적이며 입체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능적인 면과 미적 감상력 등이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반가정원은 단순한 휴양과 유희적인 공간일 뿐만아니라 도처에 사머니즘적인 상징성과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시킴으로써 풍요로운 정신적인 실체성을 얻었다.

넷째, 정원의 조영원리에서 수목의 생태적 특성과 주거환경의 기능적인면을 고려하는 등 현대 주택계획과도 조화할 수 있는 적합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한국의 반가정원은 전통적 특징인 직선형을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자연과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각 공간들이 매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영기법 역시 유략적 공간인 동시에 사색적인 공간을 꾸미고 있어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기법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유학적 분위기와 도가적 은일사상과 안빈낙도사상이 기초를 이루고있으며 상징적인 요소로서 신선계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조영사상의 적용과 식재 방법등이 사용되고 있어 이채롭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반가라는 한정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다른 건축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 참고문헌

1. 서유구,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52책. 조선 후기
2. 홍만선, 산림경제(山林經濟),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2
3. 강희안, 양화소득(養花小錄), 을유문화사, 1989
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5. 현신규, 김갑덕, 측수학(測樹學), 향문사, 1975
6. 정동오, 한국의 정원, 민음사, 1988
7. 정재훈, 한국의 옛조경, 대원사, 1990
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2001
9.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2005
10. 신상섭, 한국의 전통미술과 문화경관찾기, 대가, 2007
11. 박인태, 풍수지리학택요결, 형설출판사, 1999
12.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88
13. 한국전통조경학회, 동양조경문화사, 대가, 2009
14.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대명기획, 2007

(접수 : 2010.10.10, 심사완료 : 2010.11.12)